

한국 거주 조선족의 단체 형성과 활동 인식에 관한 연구*

강지혜** · 장우권*** · 선봉규****

| 국문초록 |

이 논문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이 자신들의 단체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으며, 단체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재한 조선족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교육, 언론, 여성, 복지, 노동 등 사회전반에 걸쳐서 단체를 결성하여 권익옹호, 이미지 개선, 조선족 공동체의 발전, 지역사회 구성원 지위 확립 등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재한조선족은 한국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갈등을 해결하고 권익추구를 위해 연합체 형태의 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의 단체 참여 및 활동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사회·정보문화·정치 및 권익옹호 등 각 부문단체 중 회원 참여가 가장 많은 단체는 사회부문 단체로 나타났다. 둘째, 네 가지 부문단체의 활동에 대한 조선족들의 만족도는 사회부문 단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한조선족들은 조선족단체의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재한조선족 단체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한조선족사회는 한국사회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확립하고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집약, 표출하기 위해 상호 교류와 연대운동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재한조선족사회는 단체 활동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회원 확보를 위한 활동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한조선족사회는 조선족들이 한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획득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주제어: 재한조선족, 민족단체, 단체 활동, 사회적응, 연대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8925665)

** 제1저자, 전남대학교 대학원 디아스포라학협동과정 석사과정(qndjtdj@naver.com)

*** 공동저자,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wk1961@hanmail.net)

**** 교신저자,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연구교수(polisun@hanmail.net)

|차례|

1. 머리말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3. 재한조선족 단체의 형성과정과 특징
4. 재한조선족의 단체 참여 및 활동에 대한 인식
5. 맺음말

1. 머리말

오늘날 중국조선족은 초국가적 이주 흐름과 맞물려 중국지역 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이주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인접 국가이면서 모국인 한국으로의 이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조선족의 한국 이주는 1992년 한-중수교와 함께 한국정부의 정책적 변화-1999년 재외동포법 제정, 2007년 방문취업제 도입 등-에서 기인한다. 2017년 12월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인 총 2,180,498명이다. 국적별 체류 외국인인 중국 1,018,074명(46.7%), 베트남 169,738명(7.8%), 타이 153,259명(7.0%), 미국 143,568명(6.6%), 우즈베키스탄 62,870명(2.9%) 등의 순이다. 외국국적동포는 841,308명이며, 자격별로는 재외동포(F-4) 415,121명, 방문취업(H-2) 238,880명, 영주(F-5) 89,426명, 방문동거(F-1) 30,328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조선족)이 702,932명으로 전체의 83.6%를 차지하였고, 미국 45,177명(5.4%), 캐나다 15,947명(1.9%) 등의 순이다.¹⁾

이와 같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은 국내체류 외국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은 무엇보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12월호, 2017, 3~4쪽, http://www.moj.go.kr/doc_html/viewer/skin/doc.html?fn=2a2d043579cb0803c2bfe4a31032ca37&rs=/doc_html/viewer/result/201801/ (검색일: 2018.2.5).

다 한국사회의 원주민들과 매우 유사한 민족적 기질과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서울특별시의 영등포구(23,600명), 구로구(19,438명), 금천구(12,319명), 관악구(10,599명) 등이다. 특히 구로구 가리봉동과 영등포구 대림동, 광진구 자양동 등은 ‘연변 거리’, ‘차이나타운’, ‘양꼬치 거리’ 등으로 불려오고 있다.

그러나 조선족에 대한 한국사회의 시선은 매우 부정적인 인식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일례로, 2017년 8월 9일에 개봉된 영화『청년경찰』에서는 조선족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대림동 조선족 타운을 범죄의 소굴로 묘사하여 조선족들을 범죄인으로 취급하고 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조선족에 대한 불편한 시선과 차별 등은 조선족사회가 결집하고 결속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영화 청년경찰이 상영된 후 재한조선족사회는 청년경찰 상영금지 시위 및 대책위 구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재한동포총연합회, 중국동포한마음협회, CK여성위원회 등 조선족의 40여개 단체들이 참여하여 ‘중국동포·다문화·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한국영화 바로 세우기 범국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재한조선족들은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부문에서 단체를 형성하고 연대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이 자신들의 권익옹호와 이미지 개선 등의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단체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으며, 단체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재한조선족 단체의 형성과정 및 특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족의 단체 회원 가입 현황을 살펴보고, 단체의 활동이 조선족사회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단체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향후 발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한조선족단체에 관한 선행연구 자료들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재한조선족의 단체 활동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재한조선족의 단체에 관한 선행연구와 연구방법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재한조선족 단체의 형성과정과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4장에서는 재한조선족의 단체 참여 현황과 단체 활동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1) 선행연구 검토

새로운 정착지에서 디아스포라에게 특별히 가족, 친척, 동료, 이웃 등 동족으로 이루어진 단체는 거주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적응하는데 매우 유용한 사회적 자본이 된다. 조선족은 한국의 원주민들과 매우 유사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환경 속에서 축적된 한국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차별로 인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한조선족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과정에서, 혹은 한국사회의 불편한 시선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다양한 부문에서 단체를 결성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재한조선족의 단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우는 1990년대 초반 조선족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교회가 지원활동을 펼치다가 2003년부터는 조선족사회에서 기존의

종교단체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단체를 결성하기 시작했으며, 1999년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한 동포지위 부여, 체류노동자의 지위 합법화가 이루어지면서 한국 종교단체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었다고 보고 있다.²⁾ 최근에는 비종교적 단체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자기정화식의 건강하고 건전한 활동을 통해 이미 만들어진 구조적 위치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와의 ‘다름’을 부각시키는, 이른바 민족적 동질성을 추구하는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춘호는 재한조선족의 정체성 정치 전략으로 정치,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주체화, 동화, 차이라는 3단계 과정을 통하여 재한조선족의 정체성의 정치 및 단체 활동을 분석하였다.³⁾ 그에 따르면, 재한조선족은 한국 사회에서 다중적 정체성을 보이면서 조직화를 이루어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요구하는 사회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확립해가고 있다. 즉 재한조선족은 정치,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차이’를 드러내고 ‘인정’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⁴⁾.

김우경은 한국 내 조선족타운에서 운영되고 있는 언론의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조선족 단체 연구를 진행하였다.⁵⁾ 그에 따르면, 조선족사회의 변화는 조선족 단체의 활동으로 이어지면서 향후에 조선족이 한국의 주류사회에 공생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한국사회와 조선족은 상호적 관점을 가지고 지속적인 ‘사회적 경청’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곽재석은 조선족의 한국 이주의 역사는 매우 짧지만, 조선족단체의 형성은 급속한 발전과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⁶⁾ 그에 따르

2) 박우, 「한국 체류 조선족 ‘단체’의 변화와 인정투쟁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91, 비판사회학회, 2011, 255~263쪽.

3) 이춘호, 「재한 중국 동포의 정체성의 정치」, 『아태연구』 21-3,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14, 143~180쪽.

4) 이춘호, 같은 논문, 176쪽.

5) 김우경, 「재한 중국동포 단체 연구: 중국동포타운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15~52쪽.

면, 특히 2007년 방문취업제도의 도입 이후, 재한조선족의 단체는 친목 단체적 성격에서 시민단체로서의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2010년 이후 조선족단체는 재한조선족들의 한국정착 의지가 높아지고 다양한 체류자격을 가진 조선족들이 유입되면서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한조선족들의 의식 및 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나아가 재한조선족단체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제기나 개선 의지를 가지고 집단적인 움직임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정은은 재한조선족사회를 배경으로 한 ‘청년경찰’과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통해 조선족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편견의 조장, 잘못된 인식과 이미지가 재생산되었으며, 한국사회의 조선족에 대한 범죄자적 인식이 ‘상징폭력’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⁷⁾ 이에 따라 조선족들이 한국사회 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연합체를 구성하여 필요와 목적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권리지향적 이익 단체를 형성해 왔다고 본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요약해보면, 재한조선족들은 한국사회 내 노동자, 한국 내 이주자, 재외동포라는 구조적 위치에서 동화 전략과 함께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단체를 결성하여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사회에 재한조선족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한국 정주의식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유형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연합체를 구성하여 공동의 목소리를 표출하면서 정치적 발언권을 강화해가고 있는 양상이다.

6) 광재석, 『재한조선족의 단체 활동과 네트워크 연구』, 선문대학교 글로벌한국학연구소와 재외동포연구원 공동 주최,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외국국적동포의 네트워크와 사회통합> 학술회의 자료집, 2017.

7) 이정은, 『귀환 조선족동포의 인정투쟁과 한국사회 차별의 구조』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17, 165~179쪽.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의 단체 형성과정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조선족의 단체 참여 현황 및 활동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재한조선족의 단체 형성과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기존연구의 성과와 각 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언론보도 기사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재한조선족의 단체 참여 현황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세 달 동안 진행되었으며, 총 163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한국어로 작성되었으며, 조사 문항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문항과 경제부문, 사회부문, 정보문화부문, 정치 및 권익운동부문 등 네 가지 단체 활동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방법은 SPSS Statistics 20.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평균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 성별은 남성이 42명, 여성이 115명이다. 연령은 10대 2명, 20대 26명, 30대 51명, 40대 53명, 50대 13명, 60대 이상 7명이다.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8명, 고등학교 졸업 45명, 전문대학 졸업 35명, 4년제대학 졸업 46명, 대학원 졸업 19명, 무학 1명이다. 직업은 전문관리직 21명, 일반전문직 17명, 공무원 3명, 사무직 29명, 판매직 7명, 자영업 32명, 서비스직 14명, 생산직 5명, 농축산수산업이 1명, 가정주부 18명, 대학생 3명, 기업CEO 2명, 기타 12명이다. 체류자격은 재외동포(F-4) 63명, 영주권(F-5) 19명, 방문취업(H-2) 10명, 국적취득 52명, 기타 4명이다. 혼인여부는 기혼 93명, 미혼 41명, 이혼 15명, 사별 3명이다. 연소득은 2천만원 미만 37명, 2

8) 각 항목별 결측치는 다음과 같다. 성별-6, 연령-10, 학력-7, 직업-16, 체류자격-15, 연소득-21, 혼인상태-11 등이다.

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42명,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32명,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15명, 5천만원 이상 16명이다. 이주연도는 1990년대 18명, 2000년-2009년 75명, 2010년도 이상 57명이다.

3. 재한조선족 단체의 형성과정과 특징

1) 재한조선족 단체의 형성 및 현황

재한조선족의 단체 형성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서로 맞물리면서 발전과 분화를 지속하고 있다. 첫 번째는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의 변화이다.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특히 중국조선족에 대한 정책은 1999년 재외동포법 제정과 2007년 방문취업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1999년에 제정된 재외동포법은 실질적인 적용과정에서 재외동포 집단내의 차등화가 이루어졌으며, 중국동포의 차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에 방문취업제를 도입하여 중국동포 및 고려인동포의 자유로운 모국 방문 및 취업기회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두 번째는 한국에 유입된 조선족의 다양화이다. 1990년대 초반에는 친척방문이나 노동자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와 일시적으로 체류하다가 중국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높았다. 반면, 2000년대 이후에는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들이 한국에 정착하고 성장하였으며, 2007년 방문취업제 이후부터 다양한 성격의 조선족들이 급속히 유입되었다. 이러한 요인을 바탕으로 재한조선족 단체의 형성과정을 네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⁹⁾

9) 재한조선족 단체의 형성 및 의제 등에 관한 시기별 구분을 보면, 대표적으로 박우는 세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첫 번째는 1990년대 초에서 2002년까지, 한국인 목사의 지도에 의해 조선족 종교단체가 결성되는 단계; 두 번째는 2003년에서 2007년

(1) 제1시기 : 1999년 재외동포법 제정 이전

중국조선족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친지방문의 형태로 한국에 입국하기 시작하였으며,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조선족의 한국 입국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한국의 외국인정책은 산업연수생제도가 1994년부터 시행되면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유입되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송출국가의 송출업체가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를 연결해주면 외국인노동자들은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첫 1년간은 연수생 신분으로 직업교육을 받고 이후 2년간은 근로자 신분으로 일하게 되는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는 한국의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산업연수생에게는 기술습득과 함께 소득을 높여주며, 이를 통해 국가 간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¹⁰⁾ 그러나 산업연수생제도가 도입된 이후 브로커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웃돈을 받아 챙기는 등 송출비리와 작업현장에서 인권침해 등으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1990년대 산업연수생제도 시기 재한조선족의 대표적인 단체는 1995년 5월 1일에 결성된 중국노동자협회이다. 이 단체는 한국인 목사와 조선족들의 연합으로 결성되었으며,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법률 및 체류상담과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인권보호, 사기피해나 부당해고 등 민·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틀을 마련하는 기초가 되었다.¹¹⁾ 특히 이 시기 대표적인 이슈는 조선족에 대한 한국인의 사기가 대량 발생하면서 1996년 10월 ‘중국한국초청사기피해자협회’가 결성되었으며, 한국 정부

까지 조선족 종교단체 이외에 비종교단체가 결성되어 영향력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단계; 세 번째는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조선족 종교단체의 영향력은 쇠퇴하고 비종교단체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단계 등이다(박우, 앞의 논문, 262쪽).

10) http://www.immigration.go.kr/HP/IMM/imm_m_sys/imm_m_s01/1175281_20853.jsp (검색일: 2018.2.5).

11) 중국노동자협회는 비영리단체로써, 단체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2008년 9월 1일에 한중여행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http://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6027> (검색일: 2018.2.5).

측에 산업연수생의 입국 허용 등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¹²⁾

(2) 제2시기 : 1999년 재외동포법 제정 이후 ~ 2007년 방문취업제 도입 이전

이 시기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1999년에 재외동포법이 제정된 것이다. 조선족들은 경실련, 지구촌동포연대(KIN) 등 한국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재외동포법의 불합리성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고, 재외동포법 반대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2002년 5월 12일에 ‘재외동포법개정대책협의회’가 결성되어 재외동포법의 조속한 개정과 불법체류 방지 종합대책안을 중단하는 시위를 개최했다. 이 시기 조선족들은 1999년 6월 6일 설립된 서울조선족교회¹³⁾의 지원을 받아 불법체류 문제와 조선족의 동포지위 인정에 관한 활동을 전개했다. 2003년 11월 29일에는 노무현대통령이 서울조선족교회를 예고도 없이 방문하여 중국동포들의 국적취득 문제에 대해 점진적 해결을 이야기 하였으며, 당시 11월 14일부터 국적회복을 주장하며 서울시내 교회 8곳에서 단식 농성을 벌여온 중국동포들이 농성을 해제하였다.¹⁴⁾ 1999년에 제정된 재외동포법이 2001년 11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지난한 개정 투쟁을 거쳐 2004년 2월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개정된 재외동포법은 1948년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중

12) 중국조선족사기피해자협회의 사기피해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1만 7천여 명에 달하며, 사기의 종류는 산업연수생사기, 초청사기, 유학생사기, 공무사기, 결혼사기 등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058728#cb (검색일: 2018.4.21).

13) 서울조선족교회는 당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집행위원장이면서 북한동포돕기운동을 전개해 온 서경석 목사가 담임을 맡아 조선족동포들을 위한 목회활동을 하였다.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5214> (검색일: 2018.4.21).

14) <http://archives.knowhow.or.kr/m/record/all/view/1046396> (검색일: 2018.4.21).

국동포 및 구소련지역 동포들을 법률상 동포로 인정했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이 시기에 재한조선족의 단체 형성 현황을 보면, 2000년에 조선족연합회 출범을 시작으로 2005년 귀한동포연합총회 창립, 2006년 중국동포한마음협회가 결성되었다. 재한조선족연합회는 재외동포법의 개정, 기술연수제도 개선 청원 등 조선족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을 벌였다. 귀한동포연합총회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조선족동포들의 단체로, 영등포지회, 구로지회, 안산지회, 성남지회, 수원지회, 고양지회 등이 있다. 특히 이 단체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중국계결혼이민여성유권자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유권자운동을 전개했다.¹⁵⁾ 중국동포한마음협회는 2006년에 7명의 회원으로 출발하여 8개의 산하단체(한마음봉사단, 한마음축구단, 한마음세종축구단, 한마음산악회, 한마음배드민턴클럽, 한마음골프클럽, 한마음마미재능나눔단, 한마음배구단 등)와 한마음 체육대회, 중국동포 배드민턴대회, 중국동포 낚시대회,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¹⁶⁾

(3) 제3시기 : 2007년 방문취업제 도입 ~ 2017년 영화 청년경찰 상영이전

1999년 재외동포법 제정 이후 중국 및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비해 모국의 재외동포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거나 차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2007년 3월에 방문취업제¹⁷⁾

15) <http://www.db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60> (검색일: 2018.4.26).

16) <http://www.db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02> (검색일: 2018.3.18).

17) 방문취업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수비자 발급 -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에게 5년 유효, 1회 최장 3년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 둘째, 입국번호 확대 -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자도 입국 가능, 무연고 외국국적동포는 한국어능력시험, 추첨 등을 통해 입국 허용(단 비자발급 쿼터 적용); 셋째, 취업기회 확대 - 사업장별 동포 고용허용인원 확대, 취업가능 업종 확대(20개 업종에서 32개 업종); 넷째, 취업절차 개선 - 취업희망자는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 신청

를 도입하였다. 방문취업제(H-2) 비자로 입국한 재한조선족들은 단순노동분야인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에서 종사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 이후, 재한조선족은 체류지원, 인적교류, 고충상담 및 법률자문, 세미나 및 포럼 활동, 재한조선족사회의 연합과 화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단체를 만들어 조선족의 권익옹호와 조선족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07년 이후 결성된 재한조선족단체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중경제친선교류협회(2008), 재한동포연합총회(2008), 중국연맹총회(2010), 재한동포교사협회(2010), 중국동포유권자연맹(2012), 중국동포친목회(2012), 재한조선족청년연합회(2013), 한중국제연합총회(2013), 한중창업경영협회(2014), GK희망공동체(2014), 중국동포연합중앙회(2014), 이주와정착독서포럼(2014), CK여성위원회(2014) 등이다. 이 시기 재한조선족 단체의 활동에서 주목할 점은 2014년 7월 25일에 결성된 중국동포연합중앙회¹⁸⁾처럼 개별 조선족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합단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단체는 2014년 9월 7일 제1회 중국동포민속문화대축제를 개최하면서 매년 추석 전일을 ‘중국동포의 날’로 제정하였다.¹⁹⁾

이러한 사실에서 재한조선족 단체는 정부의 정책변화를 추구하는 단체에서부터 (경제, 청년, 여성, 교사 등)특정 집단의 권익실현을 위한 단체,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단체, 친목 도모 및 교류를 위한 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서 단체가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후, 구직 알선의뢰 또는 자율구직 가능, 취업 개시 및 근무처 변경 시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 등이다. http://www.immigration.go.kr/HP/IMM/primage/oversea_korean.PDF (검색일: 2018.2.5).

18) 이 단체는 재한조선족사회의 ‘연합과 화합’을 실현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 언론협의회, 기업인협의회, 소상공협의회, 스포츠협의회, 청년협의회, 교육협의회, 문화예술협의회, 장학기금협의회, 한중문화교류협의회, 건강복지협의회, 노인협의회, 유학생협의회, 유권자협의회, 상조협의회 등이 산하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http://www.dongpotown.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0> (검색일: 2018.4.21).

19) <http://www.db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301> (검색일: 2018.4.21).

있음을 알 수 있다.

(4) 제4시기 : 2017년 영화 「청년경찰」 이후

한국사회의 중국조선족에 대한 인식에 관해 한 설문조사를 보면, 한국의 청년세대(20세~35세)의 경우 94%가 조선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 형성은 전체의 85%가 언론과 방송매체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²⁰⁾ 대표적으로 오원춘 사건 등 조선족의 강력범죄에 대해 미디어에서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조선족 전체를 범죄자로 묘사하면서 한국사회와 조선족 간 정상적인 관계 맺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2017년 8월에 개봉된 영화 「청년경찰」은 재한조선족사회에 매우 의미 있는 울림을 준 사건으로 기록될만하다. 재한조선족사회는 청년경찰이 상영되자 중국동포를 지나치게 비하하고 대립동을 범죄의 소굴로 표현하여 조선족동포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장애요인이 된다면 대규모 연합단체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재한조선족사회는 2017년 8월 23일에 ‘중국동포, 다문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국 영화 바로세우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를 결성하였다.

공동대책위는 정기적인 회의와 집회를 통해 청년경찰의 상영금지와 항의집회, 대립동 재한중국동포타운 바로 알리기, 10만 명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40여개의 조선족단체들이 참가하였다. 특히 2017년 9월 10일에 열린 ‘풍선·국화꽃’ 집회 및 거리행진 2차 집회에서는 60여 개 단체²¹⁾로 확대되었으며, 국내 조선족사회 전체가 조

20) <http://www.db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27> (검색일: 2018.4.21).

21) 이날 집회에 참가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사)재한동포총연합회, 중국동포한마음협회, CK여성위원회, 귀한중국동포권익증진위원회, (사)동북아평화연대, (사)이주민센터 친구, 재한동포문인협회, 중국동포사회연구소, 중국동포커뮤니티리더스포럼, (사)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사)재외동포포럼, 한중사랑교회, 생명나무숲교회, 다사랑운동본부, 동포모니터링단 강강술래, 한국기독교공공정책개발연구원, (사)

선족의 이미지와 명예에 관한 이슈를 공유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시위를 전개하는 계기가 되었다.²²⁾ 아울러 공동대책위는 한국의 대표적인 동포지원 NGO인 ‘동북아평화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등 법률지원 NGO들과 협약을 통해 민사소송, 국가인권위 제소 등 공동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는 등 국내 NGO들과 연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2017년 10월 31일에는 재한조선족들이 최초로 국회 앞 1인 시위를 전개하는 등 자신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였다.

요약하면, 재한조선족사회는 청년경찰이 상영되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신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부정한 시선과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 집회와 시위를 주도했다. 아울러 한국의 NGO 및 언론들과 적극적인 연대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향후 조선족단체의 활동 방향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2) 재한조선족 단체의 주요 특징

(1) 한국의 종교단체 지원 및 자생적 단체의 결성

현재 한국사회는 조선족의 이주로 인해 적지 않은 변화를 겪고 있다.

한중사랑, (사)월드뷰티웬즈, 재한중국교민상회, 외국인자율방범대, 한중무역협회, KC동반성장기획단, 한중창업경영협회, 한중도시우호교류협회, 중국동포연합중앙회, 재한중국동포교사협회, 한중청년협회, (재)세계합기원, 전국귀한동포총연합회, 전국귀한동포총연합회청년연합회, 전국귀한동포총연합회 귀향민경로당, 전국귀한동포총연합회 한아름경로당회장, 전국귀한동포총연합회 희망찬경로당, 전국귀한동포총연합회 반석경로당, 전국귀한동포총연합회 한마음경로당, 전국귀한동포총연합회 신흥경로당, 전국귀한동포총연합회 여지산경로당, 전국귀한동포총연합회 동암동경로당, 전국귀한동포총연합회 세일경로당, 전국귀한동포총연합회 중국동포모임, 전국귀한동포총연합회 무지개경로당, (사)실진도국제연맹, (사)꿈알월드, 중국동포경로당총연합회, (사)한국청소년진흥원, 재한중국동포장애인중앙회, 재한중국동포노인협회, 재한동포천자문화가협회, 재한중국동포상인회, 재한중국동포중의봉사회, 글로벌청년경제인연합회, 재한동포백두산예술단, 재한동포유권자희망포럼, 재한동포 3·8국제여성진흥회, 한중다문화봉사회, 중국동포다사랑방범대, 재한중국동포자율방범부도순찰대, 한부모사랑회, 재한동포교육특별위원회 등이다. **곽재석, 앞의 논문.**

22) **곽재석, 앞의 논문.**

동시에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가 시행된 2003년부터 한국의 서울 지역에 있는 가리봉동 연변거리와 지하철 2호선 대림역 주변, 자양동 양꼬치 거리, 신림동, 신대방동, 안산 원곡동, 수원시 수원역 일대에 조선족 밀집 지역이 형성되었다. 재한조선족의 밀집지역은 지역마다의 특성이 존재한다.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주로 독신 조선족들이 거주하며 일용직 및 건설현장이 주 근무지로 50~70대의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등포구 대림동은 주로 20~40대의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진구 자양동은 ‘양꼬치 거리’ 또는 ‘소황제 거리’라고 불리며 부유한 한족 유학생과 젊은 자영업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1990년대 재한조선족사회는 취업사기 문제와 불법체류 문제, 동포지위 인정 문제 등을 중심으로 한국 교회의 지원을 받아 공동 활동을 벌여 온 과정에서 중국노동자협회, 서울조선족교회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단체의 특징은 한국의 교회 목사들이 주도하여 한국의 NGO들과 연대하여 중국동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2000년도부터는 중국동포를 주제로 한 재한조선족연합회, 귀한동포연합총회 등과 같은 단체가 서울조선족교회 등 한국교회의 지원 아래 설립되었다. 2003년에는 조선족 유학생 단체인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KCN)이 설립되었다.

재한조선족들은 한국 사회 내에서 동포들의 권익향상과 이미지 개선 등 한국사회에서의 적응력을 추구하였으며, 2007년 방문취업제의 도입 이후 다양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조선족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 아울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높은 의지를 갖게 되었으며, 단체 결성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오늘날 재한조선족의 단체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등 사회의 다양한 부문뿐만 아니라 기업인, 청년, 여성, 노인, 교사 등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결성되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언론단체의 활성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자 집단 중 조선족은 다른 외국인 이주자들과 달리 언론단체를 결성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집약하여 표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재한조선족의 언론단체는 1999년 한중교류협회에서 출간한 한중동포신문이 최초이다. 2000년 6월 서울조선족교회에서 월간朝鮮族뉴스가 출간되었고, 2001년 10월 1일 동북아신문이 출간되었다. 2003년에는 인터넷 동북아신문과 중국동포타운신문이 발간되었다. 이후 한중법률신문, 한민족신문, 흑룡강신문 중국주간, 길림신문 해외판, 중국동포신문, 동포세계, 동포투데이 한중뉴스, 차이나뉴스 등이 발간되었다. 이러한 조선족동포의 언론단체는 대부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출판되고 있다. 특히 재한조선족 언론단체의 특징은 발행인이 먼저 한국인으로 되어 있어 일정한 지원을 받고 있다가 점차 조선족동포들이 직접 발행하거나 대표로 나서는 등 점차 조선족동포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부분 재정 상황이 열악하여 오프라인 신문을 접거나 신문사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²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의 언론단체는 조선족사회의 요구를 공론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조선족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례로, 동북아신문, 중국동포타운신문, 흑룡강신문, 길림신문, 한중포커스신문, (사)재한동포연합총회, 중국동포한마음협회, KC동반성장기획단, 재한동포문인협회, 민들레사랑예술단, 국제문화예술진흥회 등 조선족의 언론사와 단체들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 규모 5.4 지진 발생 이후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을 펼쳤다.²⁴⁾

23) 광재석, 앞의 논문.

24) <https://hljxinwen.dbw.cn/system/2017/11/23/001238223.shtml> (검색일: 2018.2.5).

요약하면, 한국사회에서 조선족의 언론단체는 한국사회에 조성된 조선족동포의 부정적 인식과 이미지를 개선하고, 한국사회와 조선족간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데 교량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조선족사회의 현안을 공론화하여 주류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담론을 제공하고 있다.

(3)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활동

2000년에 결성된 조선족연합회는 서울조선족교회, 경실련, 지구촌동포연대 등 한국의 교회 및 NGO들과 연대하여 재외동포법 개정 운동을 전개하여 2004년에 재외동포법을 개정하는데 기여하였다. 재한조선족은 2012년에 재한조선족유권자연맹을 결성하여 조선족의 정치참여 운동과 지역사회 봉사 활동, 조선족의 체류권 보장을 위해 각 단체와 연합체를 구성하여 한국 사회 내에서의 상호 교류를 위한 협력을 증진해 나가고 있다. 2014년 중국동포연합중앙회는 한민족의 최대 명절 중의 하나인 추석을 맞이하여 민속문화 대축제를 통해 재한조선족사회의 결속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 단체는 대축제기간에 추석 전날을 ‘중국동포의 날’로 제정하였다. 중국동포의 날 제정은 무엇보다 조선족사회의 결속과 민족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한국사회에서 조선족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영화 『청년경찰』의 상영은 재한조선족 단체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청년경찰이 조선족을 범죄 집단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해, 재한조선족사회는 약 60개 단체들의 대표가 참가하여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를 상대로 영화 상영 즉각 중단, 제작진의 대립동 방문 사과 및 언론을 통한 공개 사과문 게재, 금전적 피해 보상, 재발 방지 약속 등 공동 대응 활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재한조선족사회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조선족단체의 활동은 무엇보다 재한조선족들이 한국사회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조직화하여 더 좋은 삶의 기회를 창출하고,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달리 표현하면, 재한조선족들이 한국사회에서 이방인이 아니라 민족적,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인정투쟁(struggle for recognition)의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4. 재한조선족의 단체 참여 및 활동에 대한 인식

1) 경제부문 단체의 참여 및 활동 인식

재한조선족의 경제부문 단체는 한중창업경영협회, 한중무역협회, 재한수화상회²⁵⁾, 재한중국상인연합회, KC동반성장기획단 등이 있다. 재한조선족의 경제부문 단체의 참여 현황-회원 가입 여부, 누가 참여하고 있는가와 단체의 활동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한조선족의 경제부문 단체의 회원 가입 현황을 보면,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응답자 중 57명(35.0%)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반면, 95명(58.3%)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경제부문 단체의 회원 가입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예	57	35.0
아니오	95	58.3

25) 재한수화상회는 중국 흑룡강성 수화시 출신 조선족 경제인들이 중심이 되어 2017년 6월 6일에 결성한 단체이다. 이 단체의 주요 사업은 투자교육, 공동창업, 부동산투자, 문화공연프로젝트 기획, 수화마을 만들기 등이다. <http://www.kcfocus.com/news/184> (검색일: 2018.4.26).

누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성이 35명이며 남성은 22명이다. 연령에서는 30대가 19명, 40대가 18명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으며, 20대 7명, 50대 7명, 60대 이상이 5명이다. 학력에서는 대졸이 30명으로 가장 많으며, 고졸이하가 18명, 대학원이상이 9명으로 나타났다. 직업에서는 자영업이 17명으로 가장 많으며, 사무판매직이 13명, 전문직과 서비스생산직이 9명, 주부 6명으로 나타났다.

<표 2> 경제부문 단체의 회원 참여 현황

항목 회원 가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²⁶⁾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	전문직	사무판매직	자영업	서비스생산	주부
예	22	35	7	19	18	7	5	18	30	9	9	13	17	9	6

재한조선족들은 경제부문 단체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부문 단체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96으로 나타났다. 경제부문 단체의 활동이 조선족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정도에 대한 평균은 3.68, 한국사회에 미치는 정도에 대한 평균은 3.42로 나타났다. 그리고 향후 경제부문 단체의 발전 전망에 대한 평균은 4.21로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 경제부문 단체의 활동에 대한 인식

항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경제단체 활동의 전반적인 만족도	134	3.96	.965	1	5
조선족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정도	139	3.68	1.149	1	5
한국사회에 미치는 정도	138	3.42	1.311	1	5
향후 경제단체의 발전 전망	141	4.21	.909	1	5

26) 이 연구에서 직업은 전문직(전문 관리직, 일반 관리직, 공무원), 사무판매직(사무직, 판매직), 자영업, 서비스·생산직(서비스직, 생산직, 농어업 등), 가정주부 등으로 재분류했다.

2) 사회부문 단체의 참여 및 활동 인식

재한조선족의 사회부문 단체는 종교단체,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CK여성위원회, 연변대학교학우회, 축구 등 스포츠 동호회, 한마음봉사단 등 봉사단체, 대한아리랑경로당연합회, 한부모사랑회, 외국인자율방범대, 재한중국동포노인협회, 재한동포교사협회, 한중청년협회 등이 있다. 재한조선족의 사회부문 단체의 참여 현황 - 회원 가입 여부, 누가 참여하고 있는가 - 와 단체의 활동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한조선족의 사회부문 단체의 회원 가입 현황을 보면, <표 4>에서 보듯이 바와 같이 응답자 중 80명(49.1%)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반면, 62명(38.0%)는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의 회원 가입 현황을 비교해보면, 사회부문 단체의 회원 참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사회부문 단체 회원 가입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예	80	49.1
아니오	62	38.0

누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성이 55명이며 남성은 25명이다. 연령에서는 30대가 33명으로 가장 많고, 40대가 23명, 20대가 12명, 50대가 7명, 60대 이상이 5명이다. 학력에서는 대졸이 44명으로 가장 많으며, 고졸이하가 22명, 대학원 이상이 13명으로 나타났다. 직업에서는 자영업이 21명, 사무판매직이 20명으로 절반 이상 차지했으며, 전문직 16명, 서비스생산직이 10명, 주부 6명으로 나타났다.

<표 5> 사회부문 단체 회원 참여 현황

항목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전문직	사무판매직	자영업	서비스생산	주부
회원 가입	25	55	12	33	23	7	5	22	44	13	16	20	21	10	6

재한조선족들은 사회부문 단체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부문 단체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4.07로 나타났다. 사회부문 단체의 활동이 조선족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정도에 대한 평균은 3.92, 한국사회에 미치는 정도에 대한 평균은 3.74로 나타났다. 그리고 향후 사회부문 단체의 발전에 대한 전망은 평균 4.26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 사회부문 단체 활동에 대한 인식 결과

항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회부문 단체 활동의 전반적인 만족도	136	4.07	.990	1	5
조선족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정도	138	3.92	1.081	1	5
한국사회에 미치는 정도	138	3.74	1.109	1	5
향후 사회단체의 발전 전망	136	4.26	.837	1	5

3) 정보문화부문 단체의 참여 및 활동 인식

재한조선족의 정보문화부문 단체는 동북아신문, 중국동포타운신문, 한중경영신문, 국제문화예술진흥회, 문인협회, 한중예술협회, 한중도시우호교류협회, 재한동포백두산예술단 등이 있다. 재한조선족의 정보문화부문 단체의 참여 현황 - 회원 가입 여부, 누가 참여하고 있는가 - 와 단체의 활동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한조선족의 정보문화부문 단체의 회원 가입 현황을 보면, <표 7>에서 보는바와 같이 응답자 중 38명(23.3%)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반면, 104명(63.8%)는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체의 회원 가입 현황을 비교해보면, 정보문화부문 단체의 회원 참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정보문화부문 단체의 회원 가입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예	38	23.3
아니오	104	63.8

누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성이 26명이며 남성은 12명이다. 연령에서는 40대가 13명으로 가장 많고 30대가 11명, 60대 이상이 6명, 20대와 50대가 각각 4명이다. 학력에서는 대졸이 20명으로 가장 많으며, 고졸이하가 10명, 대학원 이상이 8명으로 나타났다. 직업에서는 서비스생산직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전문직과 자영업이 각각 8명, 사무판매직이 7명, 주부 5명으로 나타났다.

<표 8> 정보문화부문 단체의 회원 참여 현황

항목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	전문직	사무판매직	자영업	서비스생산	주부
예	12	26	4	11	13	4	6	10	20	8	8	7	8	10	5

제한조선족들은 정보문화부문 단체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문화부문 단체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

인 만족도는 평균 3.78로 나타났다. 정보문화부문 단체의 활동이 조선족 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정도에 대한 평균은 3.63, 한국사회에 미치는 정도에 대한 평균은 3.67로 나타났다. 그리고 향후 정보문화부문 단체의 발전에 대한 전망은 평균 4.11로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9> 정보문화부문 단체의 활동에 대한 인식 결과

항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정보문화단체 활동의 전반적인 만족도	130	3.78	1.029	1	5
조선족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정도	133	3.63	1.209	1	5
한국사회에 미치는 정도	132	3.67	1.157	1	5
향후 정보문화단체의 발전 전망	133	4.11	.910	1	5

4) 정치 및 권익옹호부문 단체의 참여 및 활동 인식

재한조선족의 정치 혹은 권익옹호부문 단체는 재한동포총연합회, 귀한동포연합총회, 재한동포유권자연맹, 중국동포한마음협회, 다사랑운동본부, 중국동포연합중앙회, 전국귀한동포총연합회, 재한동포유권자희망포럼 등이 있다. 재한조선족의 정치 및 권익옹호부문 단체의 참여 현황 - 회원 가입 여부, 누가 참여하고 있는가 - 와 단체의 활동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한조선족의 정치 및 권익옹호부문 단체의 회원 가입 현황을 보면, <표 10>에서 보는바와 같이 응답자 중 53명(32.5%)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반면, 84명(51.5%)는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정치 및 권익옹호부문 단체의 회원 가입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예	53	32.5
아니오	84	51.5

누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성이 34명이며, 남성은 19명이다. 연령에서는 40대가 20명으로 가장 많고 30대가 16명, 20대가 11명, 50대가 5명, 60대 이상이 1명이다. 학력에서는 대졸이 29명으로 가장 많으며, 고졸이하가 20명, 대학원 이상이 4명으로 나타났다. 직업에서는 자영업이 16명으로 가장 많고, 사무판매직이 13명, 서비스생산직이 10명, 전문직이 8명, 주부 5명으로 나타났다.

<표 11> 정치 및 권익옹호부문 단체의 회원 참여 현황

항목 회원 가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	전문직	사무판매직	자영업	서비스생산	주부
예	19	34	11	16	20	5	1	20	29	4	8	13	16	10	5

재한조선족들은 정치 및 권익옹호부문 단체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 및 권익옹호부문 단체의 활동에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92로 나타났다. 정치 및 권익옹호부문 단체의 활동이 조선족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정도에 대한 평균은 3.81, 조선족사회에 미치는 정도에 대한 평균은 3.83, 한국사회에 미치는 정도에 대한 평균은 3.79로 나타났다. 그리고 향후 정치 및 권익옹호 단체의 발전에 대한 전망은 평균 4.21로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2> 정치 및 권익옹호부문 단체의 활동에 대한 인식 결과

항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정치 및 권익옹호 단체 활동의 전반적인 만족도	134	3.92	1.041	1	5
조선족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정도	134	3.81	1.116	1	5
한국사회에 미치는 정도	132	3.79	1.119	1	5
향후 정치 및 권익옹호단체의 발전 전망	126	4.21	.854		15

요약하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은 자신들의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부분에서 사회부문 단체가 회원 참여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보다 사회부문 단체가 다른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부문단체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사회부문 단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치 및 권익옹호단체, 경제단체, 정보문화단체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한조선족들은 각 부문단체의 발전 전망에 대한 평가에서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소수자 위치에 있는 조선족들이 안정적으로 적응, 정착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대변하는 단체의 존재가 중요함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맺음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은 국내체류 외국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사회의 원주민들과 매우 유사한 민족적

기질과 문화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조선족에 대한 시선은 매우 부정적인 인식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특히 조선족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은 언론과 영화 등 미디어 매체에서 범죄사건이나 잔인한 캐릭터를 통해 왜곡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²⁷⁾ 재한조선족은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한국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왜곡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단체를 결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재한조선족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교육, 언론, 여성, 복지, 노동 등 사회전반에 걸쳐서 자신들의 단체를 결성하여 권익옹호, 이미지 개선, 조선족 공동체의 발전, 지역사회 구성원 지위 확립 등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특히 재한조선족사회는 2017년 영화 『청년경찰』에서 조선족을 비하하고 조선족집거지인 대림동을 범죄의 소굴로 묘사하는 것에 대한 반대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연합체를 구성하였다. 즉 공동대책위의 결성은 재한조선족사회에서 조선족의 이미지와 명예에 관한 이슈가 신속히 공유되었으며, 조선족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하였다. 다양한 부문의 단체들이 상호 연계하고 공동 대응하여 조선족사회의 결속력을 제고하였고, 한국사회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표출하고, 한국의 NGO들과 연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의 단체 참여 및 활동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사회, 정보문화, 정치 및 권익옹호 등 각 부문단체 중 회원 참여가 가장 많은 단체는 사회부문 단체로 나타났다. 둘째, 네 가지 부문 단체의 활동에 대한 조선족들의 만족도는 사회부문 단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한조선족들은 전반적으로 단체의 활동이 조선족사회의 발전에 일정하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울러 재한조선족들은 조선족단체의 향후 발전

27) <http://www.db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27> (검색일: 2018.2.1).

가능성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 청년경찰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확인되듯, 재한조선족 사회는 한국사회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확립하고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집약, 표출하기 위해 상호 교류와 연대운동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재한 조선족사회는 단체 활동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회원 확보를 위한 활동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한조선족사회는 조선족들이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획득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 참고문헌 |

- 강성봉, 『국내 자생 중국 동포 단체 임원의 사회 인식과 정치 참여』, 2016 통일부 통일기획 패널사업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특별 콜로키움, 『먼저 온 통일, 국내체류 중국동포와 사회통합』 자료집, 2016.
- 곽재석, 『재한조선족의 단체 활동과 네트워크 연구』, 선문대학교 글로벌한국학연구소와 재외동포연구원 공동 주최,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외국국적 동포의 네트워크와 사회통합> 학술회의 자료집, 2017.
- 김우경, 『재한 중국동포 단체 연구: 중국동포타운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박우, 『한국 체류 조선족 ‘단체’의 변화와 인정투쟁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제91집, 비판사회학회, 2011.
- 이정은, 『귀환 조선족동포의 인정투쟁과 한국사회 차별의 구조』,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17.
- 이춘호, 『재한 중국 동포의 정체성의 정치』, 『아태연구』 제21집 3호,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14.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12월호, 2017.
- <http://archives.knowhow.or.kr/m/record/all/view/1046396> (검색일: 2018.4.21).
- <http://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6027> (검색일: 2018.2.5).
- <http://www.db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27> (검색일: 2018.2.1).
- <http://www.db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02> (검색일: 2018.3.18).
- <http://www.db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301> (검색일: 2018.4.21).
- <http://www.db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27> (검색일: 2018.4.21).
- <http://www.db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60> (검색일: 2018.4.26).
- <http://www.dongpotown.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0> (검색일: 2018.4.21).
- <https://hljxinwen.dbw.cn/system/2017/11/23/001238223.shtml> (검색일: 2018.2.5).
- http://www.immigration.go.kr/HP/IMM/imm_m_sys/imm_m_s01/1175281_20853.jsp (검색일: 2018.2.5).
- http://www.immigration.go.kr/HP/IMM/imm_m_sys/imm_m_s03/1175317_20856.jsp (검색일: 2018.2.5).
- http://www.immigration.go.kr/HP/IMM/primage/oversea_korean.PDF (검색일: 2018.2.5).
- <http://www.kcfocus.com/news/184> (검색일: 2018.4.26).
-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5214> (검색일: 2018.4.21).
- http://www.moj.go.kr/doc_html/viewer/skin/doc.html?fn=2a2d043579cb0803c2bfe4a31032ca37&rs=/doc_html/viewer/result/201801/ (검색일: 2018.2.5).

| Abstract |

A Study on Formation and Recognition of Ethnic Organization
Activities of Korean-Chinese in South Korea

Kang, Ji-Hye · Chang, Woo-Kwon · Sun, Bong-Ky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Korean-Chinese living in South Korea are aware of various types of ethnic organization activities. Korean-Chinese ethnic organizations are formed various types of organizations throughout the society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arts, education, media, women, welfare, labor and sports to establish their status as a member of the local community. Especially, the Korean-Chinese are working together to solve the negative perceptions and conflicts of Korean society and to form alliance type organizations for the sake of their rights. The summary of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participation and activities of Korean-Chinese, residing in Korea on ethnic organizations as follows. First, the social sector organization is the organization with the highest participation among members of each sector such as economy, society, information culture, political and advocacy. Second, Satisfaction with the activities of the four sector organization was highest among the social sector organizations. Third, Korean-Chinese in Korea regard that the activities of ethnic organizations as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Korean-Chinese ethnic communities. Also they showed a positive perception about the future development potential of Korean-Chinese ethnic organization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confirmed through the activities of the 'Midnight Runners' Coalition Committee, in order to establish their position in the Korean society and to express their voices effectively, Korean-Chinese society should rescue the anti-corruption and the unity among the organizations, and act for the importance of solidarity and unity. Second, the Korean-Chinese community should try to secure more members 'membership, which is the foundation of the national organizations activities. The Korean-Chinese community in Korea should work harder to secure membership, which is the basis of the ethnic organization activities. Lastly, the Korean-Chinese society should actively promote the movement to acquire civil and political rights for the Korean people to be recognized as members of Korean society.

Key Words: Korean-Chinese in South Korea, Ethnic Organization, Organization Activity, Social Adjustment, Solidarity

· 논문투고일: 2018년 3월 21일 · 심사완료일: 2018년 4월 19일 · 게재결정일: 2018년 4월 24일